

제주 강상현 태권도 세계선수권 2연패 도전

돌아온 '전설' 이창민, 제주SK 구해낼까 병역 마치고 10일 등록... 15일 대전 경기 출장 목표

2025년도 남자 +87kg 국가대표 선발전 완벽승 지난 세계선수권 우승... 전국체전은 2연속 금

제주 출신 태권도 국가대표 강상현(계명대)이 지난해 이어 다시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강상현은 지난 9월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최종전 남자 +87kg 결승에서 변길영(삼성ես원)을 라운드 점수 2-0(16-3 19-14)으로 완벽하게 제압하며 정상에 올랐다. 이어서 강상현은 대회 우승으로 각 채급 1위에게 주어지는 2025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강상현은 앞서 8강전에서 전현민

(계명대)을 2-0으로 꺾은 뒤 준결승전에선 대학 후배 박찬희(한국체대)를 2-0으로 물리쳤다. 승자 결승전에서도 대학 후배인 손태환마저 2-0(14-4, 14-9)으로 따돌리며 전 경기에서 한 라운드도 뺏기지 않고 완승을 거뒀다. 제주출신으로 고대휴 제주특별자치도청 감독 이후 21년 만인 2023년 국가대표로 발탁된 강상현은 오현중, 남녕고 시절 전국 무대를 평정한 뒤 대학부에서도 최강의 실력을 뽐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2023세

계태권도선수권에 대해 우승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제주대표로 출전해 2022년 은메달에 이어 2023, 2024년 2연속 금메달을 제주 선수단에 안긴 바 있다. 삼양초·아라중을 졸업한 제주출신 김시우(서울체고 2)는 여자 -53kg 결승전에서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자인 박해진(고양시청)에게 석패하며 다잡았던 티켓을 놓쳤다. 이번 대회는 채급별로 2024년도 국가대표 선발 최종대회 1·2위와 2024 파리 올림픽 참가자, 2024년 처음 도입된 국내 랭킹제의 상위 순위자 8명(고등부 1·2위, 대학부 1~3위, 일반부 1~3위)이 참가했다



태권도 +87kg 국제대 선발된 강상현. 위영석기자 yswi968@ihalla.com

을 시즌 개막전 승리 후 1무2패로 부진에 빠진 제주SK FC에 남태희와 함께 중원을 책임질 '살아있는 전설'이 돌아왔다. 제주SK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미드필더 이창민이 10일 팀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창민은 그동안 K4리그 거제시 민속구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복귀를 준비해왔다. 이창민은 K리그 최고의 미드필더이자 테크니션으로 손꼽히는 선수로 K리그 통산 259경기에 출전해 30골 26도움을 기록했다. 2017년 K리그 대상 클래식 베스트 11 미드필더, 2017 제7회 EAFF E-1 챔피언십 남자 국가대표 등 화려한 개인 커리어와 함께 2016년 제주 입단 후 현재 선수단 중 가장 오랫동안 제주 유니폼을 입은 제주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특히 제주에서만 무려 206경기에 출전한 이창민은 제주SK 현역 최다 출전기록을 보유한 정운의 213경기를 넘어설 유력한 선수이기도 하다. 이창민의 복귀로 제주SK는 남태희, 이탈로, 김건웅 등과 함께 K리그1 정상급 중원을 구축하게 됐다. 오는 15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제주SK 이창민. 제주SK FC 제공

홈 경기 출전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창민이 개막전 승리 후 부진에 빠진 제주를 구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는 지난 9일 울산 원정경기에서 0-2로 패하며 시즌 전적 1승1무2패, 승점 4로 전북과 함께 공동 8위에 머물러 있다. 이창민은 "성공적인 복귀 후 제주 소속 최다 출전 기록도 깨고 싶다"며 "무엇보다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주향함으로써 수놓았던 제주SK 팬들이 너무 그리웠다"라고 복귀 소감을 전했다. 위영석기자

한화 폰세·두산 콜 어빈, 강렬한 KBO 데뷔

시범경기 kt·두산 3연승

2025년 KBO리그 용병 투수 코디 폰세(한화 이글스)와 지난해 빅리그에서 활약한 콜 어빈(두산 베어스)이 한국 무대 데뷔전에서 강렬한 인상을 심었다. 한화는 10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벌인 프로야구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시범경기 SSG 랜더스와 방문 경기에서 3-1로 승리했다. 이날 폰세의 역투가 빛났다. 폰세는 최고 시속 153km의 빠른 공과 투심 패스트볼, 컷 패스트볼, 커브, 체인지업, 포크볼 등 다양한 공을 던지며 4이닝 동안 안타 3개와 볼넷 2개를 내주고 실점 없이 KBO리그 데뷔전을 마쳤다. 4회 2사 1, 2루 위기 최정 타석에서 폰세는 초구를 던지기 전에 피치클록 위반으로 '볼'을 1개 안고 출발했다. 폰세는 최정을 맞아 25초 안에 투구하지 못해 1볼에서 대결을 시작했다.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폰세는 최정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해 이닝

을 끝냈다. 두산은 삼성 라이온즈에 8-5로 재역전승하며 시범경기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두산의 콜 어빈은 삼성을 상대해 3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공은 30개만 던졌고 사사구 없이 삼진 4개를 잡았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0km였다. 두산은 아유찬이 0-0이던 4회 2사 1, 2루에서 삼성 선발 아리엘 후라도(3%이닝 5피안타 3실점)를 두들겨 2타점 3루타를 작렬해 앞섰다. 삼성은 구자욱의 5회 구자욱의 2타점 2루타, 6회 신인 함수호의 솔로포 등으로 5-3, 역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두산은 7회 오명진의 1타점 2루타로 추격하고, 8회 상대 실책으로 재역전한 뒤, 9회 터진 장승현의 좌월 투런포로 승부에 췌기를 박았다. kt 위즈도 수원 홈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7-4로 꺾고 3연승 신바람을 냈다. 1번 강백호, 2번 로하스 조합이 빛났다. 1회말 강백호가 중월 2루타를 치자, 로하스가 오른쪽 담을 넘어가는 선제 투런 아치를 그렸다.



10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SSG 랜더스의 시범경기. 한화 선발 투수 폰세가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백호는 이날 2타수 2안타 1볼넷 1득점, 로하스는 3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NC 타이거스는 창원 홈에서 KIA 타이거즈를 6-3으로 제압했다. NC 원소 선발 최성영은 4이닝 2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다. KIA 신인 김태형은 이날 선발 등판해 2이닝 2피안타 3볼넷 2실점하며 패전의 멍에를 썼다. LG 트윈스는 부산 원정길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8-2로 꺾고 2패

뒤 첫 승리를 거뒀다. '2년 차' 외국인 투수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는 3%이닝 4피안타 1실점(비자책)의 무난한 투구를 했고, 신인 투수 김우성은 9회에 등판해 피치클록을 위반하고 볼넷 2개를 내주며 고전했지만, 안타를 맞지 않고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롯데 원소 선발 김진욱은 4이닝 1피안타 무실점 5탈삼진으로 역투했다. 하지만 롯데는 실책 3개를 범하며 자멸했다. 연합뉴스

제주고 고교야구 2경기 연속 '콜드게임 패'

마운드 붕괴... 16일 첫승 도전

제주 유일 고교야구팀 제주고가 2025 고교야구 주말리그에서 2경기 연속 콜드게임으로 패배하는 부진을 보였다. 주말리그 경상권B그룹인 제주고는 지난 8일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대구 상원고와의 첫 경기에서 1-16, 7회 콜드게임으로 패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전통강호 경북고와의 경기에서도 1-8, 7회 콜드게임으로 두 경기 연속 참패했다. 제주고는 투수진이 무너지면서 상원고와의 경기에서 사사구만 13개를 내줬고, 경북고와의 2차전에선 10안타를 허용했다. 제주고는 오는 16일 같은 구장에서 권역 내 유일한 클럽팀인 대구 북구SC(U18)를 상대로 첫 승 도전에 나서게 된다. 제주고 박재현 감독은 "시즌 초반 조직력에서 열세를 보였지만 투·타를 겸하고 있는 좌완투수 김대승, 사이드암 석지민, 1학년 고민성 등이 자기 몫을 하고 있는 만큼 다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1:05 동행(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00 TV 유지원 7:30 생생정보 스페셜 8: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30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1:20 사랑방 퀴즈 당구리 퀴(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친절한 선수(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헬로키즈 TV생물도감(재) 11: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11:45 까망과 베르의 푸드트럭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비 스페셜 9:50 종ын이집 9:55 SBS 10 뉴스 10:30 잘 먹고 잘사는 법 플러스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8:50 히프와 친구들 9:20 자이언트 펌TV 10:30 한국기행 12:10 귀신은 몰 13:00 EBS 광생학교 15:40 마사외 공 16:30 피파 피그 19:50 극한직업 21:35 한국기행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우리 동네 13: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4:00 KBS 뉴스 14:10 생로병사의 비밀(재) 15:0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5: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6:00 시사간담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50 한국의 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브래드와 윌크의 세계여행(재) 16:00 TV 유지원(재) 16:30 어린이 동물타미(재) 17:00 라이즈맨 17:15 슈팅스타 캐치 티-핑 17:30 트레이닝노트 세상을 건다 스페셜	12:00 12 MBC 뉴스 12:25 MBC 네트워크특선 13:25 뽀빠리 좋아 스페셜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알마를 부탁해(재)	12:00 SBS 12 뉴스 12:50 전국 TOP10 기요소(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화정기행 17:00 SBS 오 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본게이2	KCTV 9:00 KCTV 9시뉴스 9:30 탐나는 보이스 11:30 지혜의 숲 12:30 해설이 있는 제주어 음악여행 13:20 나혼자 여행지도 14:30 남민을 고향리 15:20 탐나는 보이스 16:10 지혜의 숲 17:00 KCTV 17시 뉴스 17:30 취미로 먹고 산다 19:00 KCTV 종합뉴스
18:00 6시 내외국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보물섬 20:30 일일연속극 결혼하지 말공아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시사기획 창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영상앨범 산(재)	18:00 경채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20:30 셀러브리티의 비밀 21:50 스텝 건 22:50 아이 러브 스포츠 23:15 오래된 만남 추구(재)	18:05 테마기행 길 스페셜 19:05 친절한 선수(재)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손석희의 질문들 22:20 PD수첩 23:20 특집 100분토론	18:50 생방송 투데이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22:20 신들린 연애 2	제주CBS FM 93.3MHz 90.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투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5 TBN 제주여행기 18:00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 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1일

김홍상 지단(호리)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사소한 다름이나 논쟁이 생기니 조심. 48년 동료나 동업자, 거래처의 일이 원활하지 못하다. 각별한 주의 요망. 60년 사소한 시비가 구슬수가 되니 읊주나 자방운전은 삼가고 조기 귀가가 좋다. 72년 말뚝함이 있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날.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 84년 애인에게 히든카드를 보이지 마라.

37년 낙상이나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 조심. 49년 재물 손실이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경쟁업체 등장. 61년 사업이나 진로개발 등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73년 약속이 중첩되거나 시간이 같은 경우가 생기니 선약에 충실하라. 85년 기조가 튼튼해야 하니 매사를 꾸준히 다져 나가는 습관을 기른다.

38년 든든한 내 자식의 자랑도 남이 해야 더욱 빛난다. 50년 치밀하고 꼼꼼하며 정확함이 돋보인다. 62년 기쁜 일에 참여하면 자녀나 지갑을 잘 챙길 것. 마음고생이 있는 날. 74년 차량으로 인해 고생을 하니 운전 조심. 86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와도 반기지 않다. 배반 또는 배신수가 있으니 조심.

39년 친인척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격정스런 소식을 접한다. 51년 웃어른 일로 자금이 지출되거나 손재수가 있다. 63년 사업이 호전되고 직장인은 명예, 승진. 75년 남의 말에 현혹되거나 너무 들뜨면 구설이 시달리니 마음을 편하게 하라. 87년 이성교제나 모임이 주선되고 기쁨도 있다. 귀가는 가능한 늦지 않게.

40년 이웃과 나눔을 갖거나 먹을 복이 있다. 52년 경력과 노하우로 사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재산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64년 부부간에 다툼이 커지니 즉시 화해할 것. 76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굵고 시가지가 생겼다가도 없어진다. 88년 대담하게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외출을 기다리고 있다.

41년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 53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65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요망. 77년 집안에 격정이나 근심이 있고 언락이 될 수 있으니 먼저 연락을 취하라. 89년 약속이 늘어나고 계획이 많으나 자질이 생긴다.

42년 갈 곳 없이 많고 재물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참할 것. 54년 주변에 나를 알리려면 대인관계를 지속하라. 66년 솔직하고 화끈함을 좋아해도 비판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지 하지 마라. 78년 집안에 뒷사람 일로 걱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를 해드려면 좋다. 90년 친구나 이웃과 모임이 생기면 참석하라.

43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려라. 골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55년 직장에서의 기쁜 일이 있거나, 마감계약이 있다. 67년 이성교제나 새로운 이성문제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고 갈등. 79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대안이 있고 아이디어가 새롭다. 91년 의욕이 증가하여 무슨 일든 하고 싶어한다.

44년 좋은 일 속에 흠이 도사리니 미어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 56년 명예나 인간관계 체세술이 뛰어나고 하는 일이 좋아진다. 68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이 인정받는다. 80년 시험, 공부는 좋으나 직장인은 갈등 고민. 92년 관청에 할 일이 있어 외출을 하거나 친구의 소식을 접한다.

45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적 근심수가 오니 귀가는 늦지마라. 57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안부전화가 필요. 부부간 시댁, 처가문제로 논쟁한다. 69년 자녀일로 고민하거나 상의할 일이 생긴다. 81년 가정불화, 애정관계 문제있으니 이해하고 배려 필요. 93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게 좋다.

46년 자녀에 혼담이 오거나 상견례가 오갈 수 있다. 58년 책임분야 능력을 인정받고 순조롭다. 다만 자녀로 인해 부모는 마음만 급하다. 70년 소개 또는 중매를 받아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호기심이 발동하고 구매의욕이 커진다. 94년 의욕이 상승하나 계획추진은 지연되는 모습으로 심사숙고 필요.

47년 자녀에게 편안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때론 필요하다. 59년 자신 일보다 자녀로 인한 마음. 전전긍긍. 71년 멧을 내고 외출하려 한다. 이성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크다. 83년 취업준비장전 업무로 바쁘고 분주하다. 95년 힘이 들이 들어내색하면 힘이 더 빠진다. 변통하는 것은 신중을.